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75호 【루계 제2302호】주제 99 (2010)년 3월 16일 (화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공동구호를 받들고 모든 전선에서 대혁신, 대비약의 폭풍을 일으키자

선군조선의 혁명적기상 높이 떨치며 새로운 위훈 창조

희천발전소건설에서 이룩되고 있는 자랑찬 성과

공동사설과 당중앙위원회, 당중앙사위원회 공동구호를 받들고 새로운 천리마속도, 《희천속도》로 비약의 열풍을 일으키며 총공세의 앞장에서 내달리고 있는 희천발전소 건설자들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발전소건설속도가 날아가 높아지고 있다.

총합된 자료에 의하면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난해 3월 희천발전소건설에 대한 력사적인 현저적지도를 하신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영웅적군인건설자들을 비롯한 발전소건설자들은 참으로 방대한 일감을 해해가며, 보편한 투쟁의 나날에 발전소건설자들은 수십km에 달하는 작업장들에 대한 굴진을 기본적으로 끝내고 기본물길굴착공사량의 많은 몫을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현재건설에서도 큰 전진이 이룩되었다. 연계기초굴착공사기 기본적으로 끝나고 콘크리트타입속도를 훨씬 높일수 있는 우리 식의 시방방법이 널리 도입되어 올해중에 연계공사실적을 비약적으로 높일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었다. 발전소건설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총공사량의 30%정도를 돌파하는 자랑찬 성과가 이룩되었다.

희천발전소건설에서 이룩된 이 자랑찬 성과는 강성대국건설의 웅대한 구상을 펼쳐시키고 실현을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이끌어 나가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며 전체 건설자들의 결사투쟁의

정신이 낡은 자랑찬 결실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전군, 전민이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혁명적군인정신과 투쟁기풍으로 살며 싸워나갈 때 이 세상에 우리가 당할 강적이 없고 우리가 점령하지 못할 요새가 없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난해에만도 발전소건설을 두차례나 찾아오시고 군인건설자들과 동격대원들의 투쟁성과를 높이 평가해주시면서 그들을 《희천속도》의 창조자들로 시대의 앞장에 내세워주시고 더 높이 비약하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었다. 올해 정초 또다시 희천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강추위속에서도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군인건설자들을 고무격려해주시고 건설을 앞당겨 끝내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명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고 지난해에 대고조시대 제일기수로서의 영예를 떨치며 혁혁한 성과를 이룩한 군인건설자들과 동격대원들은 올해에도 발전소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안아올 이상한 각오를 안고 년초부터 총공세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고 있다.

현장지휘부의 일꾼들은 연계공사와 물길굴공사, 송전선건설공사가 동시에 벌어지는 데 맞게 공사전반에 대한 작전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하면서 대중을 새로운 위훈창조로 불러일으키고 있다.

연계건설을 맡은 군인건설자들이 영웅적조선인민군의 돌격속도, 일당백속도로 총공세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고 있다. 최근 1호발전소 송전선연계설에 펼쳐나선 조선인민군 박정남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은 올해에 연계건설에서 비약적인 성과를 안아올 똑같은 마음안고 년초부터 암반기초굴착공사와 선별장, 혼합장설공사를 다그치기 위한 줄기찬 투쟁을 벌여왔다. 이곳 군인건설자들은 부방의 추운 날씨도 아랑곳하지 않고 연계우안과 좌안의 암반굴착투쟁을 벌여 짧은 기간에 수만㎡의 토량을 처리하고 연계기초굴착작업을 기본적으로 끝냈다. 부대에서는 군인건설자들의 양양된 열의에 맞게 골짜기작장과 선별장상부구조물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 한편 세멘트와 골재확보를 위한 투쟁을 동시에 내밀었다. 그 후작을 대발파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여 수십만㎡의 모래원천을 확보해놓고 새 공법을 전격적으로 도입할수 있는 토

대를 특루히 마련해놓았다. 조선인민군 오명필, 김태봉 소속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은 완공의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해 온도보장대책을 세우고 겨울철에도 콘크리트타입을 진공적으로 불러 콘크리트기설적을 올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최근 2호발전소 연계건설을 맡은 조선인민경비대 박희준소속부대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은 부대지휘관들은 공사량이 늘어난데 맞게 년초부터 통이 큰 작전을 펼치었다. 이곳 군인건설자들은 《당일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구호를 높이 들고 완강한 전투를 벌여 20일 남짓한 기간에 2만㎡의 암반굴착을 진행하였으며 편이 공사용도로를 재건설하여 연계콘크리트기설을 전격적으로 진행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이 기간에 3월 25일청년동격대 군인건설자들은 암반굴착공사와 함께 부재생산투쟁을 중단없이 내밀어 현장의 곳곳마다에 부재들을 쌓아놓았으며 조정남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은 새로운 방식의 벨트콘베어를 설치하여 공사기일을 앞당기고 건설

성과를 특루히 마련해놓았다. 조진인민군 오명필, 김태봉 소속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은 완공의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해 온도보장대책을 세우고 겨울철에도 콘크리트타입을 진공적으로 불러 콘크리트기설적을 올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최근 2호발전소 연계건설을 맡은 조선인민경비대 박희준소속부대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은 부대지휘관들은 공사량이 늘어난데 맞게 년초부터 통이 큰 작전을 펼치었다. 이곳 군인건설자들은 《당일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구호를 높이 들고 완강한 전투를 벌여 20일 남짓한 기간에 2만㎡의 암반굴착을 진행하였으며 편이 공사용도로를 재건설하여 연계콘크리트기설을 전격적으로 진행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이 기간에 3월 25일청년동격대 군인건설자들은 암반굴착공사와 함께 부재생산투쟁을 중단없이 내밀어 현장의 곳곳마다에 부재들을 쌓아놓았으며 조정남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은 새로운 방식의 벨트콘베어를 설치하여 공사기일을 앞당기고 건설

성과를 특루히 마련해놓았다. 조진인민군 오명필, 김태봉 소속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은 완공의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해 온도보장대책을 세우고 겨울철에도 콘크리트타입을 진공적으로 불러 콘크리트기설적을 올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최근 2호발전소 연계건설을 맡은 조선인민경비대 박희준소속부대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은 부대지휘관들은 공사량이 늘어난데 맞게 년초부터 통이 큰 작전을 펼치었다. 이곳 군인건설자들은 《당일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구호를 높이 들고 완강한 전투를 벌여 20일 남짓한 기간에 2만㎡의 암반굴착을 진행하였으며 편이 공사용도로를 재건설하여 연계콘크리트기설을 전격적으로 진행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이 기간에 3월 25일청년동격대 군인건설자들은 암반굴착공사와 함께 부재생산투쟁을 중단없이 내밀어 현장의 곳곳마다에 부재들을 쌓아놓았으며 조정남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은 새로운 방식의 벨트콘베어를 설치하여 공사기일을 앞당기고 건설

성과를 특루히 마련해놓았다. 조진인민군 오명필, 김태봉 소속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은 완공의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해 온도보장대책을 세우고 겨울철에도 콘크리트타입을 진공적으로 불러 콘크리트기설적을 올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최근 2호발전소 연계건설을 맡은 조선인민경비대 박희준소속부대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은 부대지휘관들은 공사량이 늘어난데 맞게 년초부터 통이 큰 작전을 펼치었다. 이곳 군인건설자들은 《당일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구호를 높이 들고 완강한 전투를 벌여 20일 남짓한 기간에 2만㎡의 암반굴착을 진행하였으며 편이 공사용도로를 재건설하여 연계콘크리트기설을 전격적으로 진행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이 기간에 3월 25일청년동격대 군인건설자들은 암반굴착공사와 함께 부재생산투쟁을 중단없이 내밀어 현장의 곳곳마다에 부재들을 쌓아놓았으며 조정남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은 새로운 방식의 벨트콘베어를 설치하여 공사기일을 앞당기고 건설

은 량의 세멘트와 제판들을 우선적으로 생산보장하였으며 성, 중앙기관들과 각 도들에서 발전소건설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를 책임적으로 마련하여 보내주는 한편 동격대원들의 생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활발히 진행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경 희천발전소건설을 기어이 완공하려는 군인건설자들과 동격대원들의 결사투쟁의 의지와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공사성과는 날아가고 있다.

글 본사기자 정성일 사진 본사기자 리명천



총공세의 불길높이 생산에서 련일 혁신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

지난 2월 경에하는 장군님을 자기들의 일터에 모시고 크나큰 기쁨을 드린 황해제철련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로동계급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의 보도에 접하여 열렬적의 기상안고 총공세의 불길높이 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창조하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당의 혁명적진정과 배짱으로, 당의 사상과 령도에 무한히 충실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투쟁으로 경제건설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려는것이 당의 결심이며 의도입니다.》

지나해에 이어 올해에도 또다시 련합기업소를 찾아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당장 65톤을 높은 로동적 성과로 빛내기 위해 총공세의 불길드높이 날아날마다 새로운 위훈을 창조하고 있는 이곳 일꾼들과 로동계급의 투쟁을 고무격려해주시면서 강철생산을 늘리기 위한 과업을 제시해주시고 그 수행을 위한

방도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셨다.

경에하는 장군님께서도 물소 전기로앞에서 용해공들과 함께 기법사진도 찍으시면서 황철로동계급이 강성대국건설에서 연계 앞장서나 가도록 힘있게 고무해주셨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경에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감동중산으로 보답하기 위하여 펼쳐나선 생산전선의 전체 일꾼들과 로동계급의 양양된 열의에 맞게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여 전투장마다에서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도록 하고 있다.

련합기업소의 모든 일꾼들이 현장을 내려가 화산식정지사업을 전투적으로 벌이면서 공작, 로동자들이 강철생산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도록 적극 고무추동하고 있다. 특히 생산에서 제일 중요한 몫을 맡은 강철조각에 정치사업의 화력을 집중하고 조각의 로동계급이 날마다 새 기준,

새 기록을 창조해나가도록 떠밀어주고 있다. 도당위원회는 책임일꾼들도 련합기업소에 내려가 강철과 암연강제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알아보고 필요한 대책을 세워주면서 경에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관철케로 일꾼들과 로동계급을 적극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의 보도에 접하여 누구나 다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에서 생산전선양을 일으키도록 힘있게 고무추동하고 있다.

강철조각의 용해공들이 혁신정장을 비롯하여 여러 생산공정을 더욱 완벽하기 위한 헌신적투쟁을 벌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강철공작품과 여러 과학연구기공합들과 긴밀한 련계를 맺은 생산공정에서 최첨단수준을 돌파하기 위한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다. 련합기업소에서는 주체철생산을 늘리기 위한 투쟁에서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주체철생산은 많은 일꾼들과 로동계급은 전정연습에 미쳐달리는 천리마들에게 불려라를 안기는 심정으로 생산공정에 대한 기술관리를 짜고들면서 매일 많은 량의 주체철을 생산하고 있다. 원료보장을 맡은 단위에서도 주체철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원만히 보장하여 주체철 생산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 련합기업소안의 모든 직장, 조급일꾼들과 로동자들은 경에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관철케로 자기들이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힘찬 투쟁을 벌여 생산에서 련일 새로운 혁신을 창조하고 있다.

지금 황철의 로동계급은 경에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심장에 새기고 강철중산의 불길을 계속 높여나감으로써 승리의 자랑안고 10월의 대추경전에 몇몇하게 들어설 한마음으로 생산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 있다. 특파기자 김천일

비날론 영웅들 처럼

2.8비날론련합기업소를 현대화하는데서

빛나는 위훈을 세운 74명의 일꾼들과 과학자, 파 로동계급은 전정연습에 미쳐달리는 천리마들에게 불려라를 안기는 심정으로 생산공정에 대한 기술관리를 짜고들면서 매일 많은 량의 주체철을 생산하고 있다. 원료보장을 맡은 단위에서도 주체철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원만히 보장하여 주체철 생산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 련합기업소안의 모든 직장, 조급일꾼들과 로동자들은 경에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관철케로 자기들이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힘찬 투쟁을 벌여 생산에서 련일 새로운 혁신을 창조하고 있다.

지금 황철의 로동계급은 경에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심장에 새기고 강철중산의 불길을 계속 높여나감으로써 승리의 자랑안고 10월의 대추경전에 몇몇하게 들어설 한마음으로 생산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 있다. 특파기자 김천일

위에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운 천리마대고조시기의 영웅들이 우리 조국의 위대한 영웅서사시를 빛나게 아로새겨왔다. 영웅은 시대의 선구자이며 참된 인간의 전형이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는것이 전사회적기풍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또 얼마나 많은 영웅들이 태어났던가. 란부영웅, 건설자영웅, 과학자영웅... 이런 영웅들이 많아 우리 조국이 영웅의 나라로, 불멸의 강국으로 빛을 뿌리고 있는 경우에 오늘과 같이 인민의 리상이 실현되는 비영웅의 전성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 우리 당은 모든 사업들이 다 영웅이 될것을 요구하며 우리 사회에서는 누구나 다 영웅이 될수 있다. 로력영웅칭호를 수여받은 2.8비날론련합기업소의 위훈자들속에는 당일꾼과 행정일꾼은 물론 로장도 있고 수리공도 있으며 용접공과 운전사, 설계원과 목공, 제품건설공도 있다. 그가 누구건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친 헌신의 피땀을 보석처럼 빛내어주는것이 어머니 우리 당이고 우리의 사주주의제도이다. 오늘에 대고조적전쟁은 그 어머니 영웅적위훈의 활무대이다. 우리는 비날론영웅들의 정신력과 투쟁기풍으로 모든 일터마다에서 대혁신, 대비약의 폭풍을 일으켜나가야 한다. 누구나 후대들에게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영예로운 승리를, 영웅적위훈의 창조자라고 몇몇이 자랑할수 있게 오늘에 하루하루를 값높이 빛내어나가야 한다.

농업생산에 이바지하는 연구성과 확대

전자재료연구소에서

최근 전자재료연구소의 과학자들이 성능높은 종자처리기술을 농업분야에 확대도입하기 위한 투쟁에서 큰 성과를 이룩하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농업과학기술혁명을 다그쳐야 최신평화기술에 기초하여 농업은 공업화, 현대화, 과학화하고 농업생산력을 높이고 농민생활수준을 높일수 있습니다.》

어버이수령님의 유훈과 경에하는 장군님의 말씀에 높이 받들고 전자재료연구소의 과학자들이 개발한 종자처리기술은 종자의 물질대사를 촉진시키고 효소의 활성을 높일수 있는 여러가지 물리적자극제에 의하여 종자를 처리함으로써 싹트는 힘을 높이고 작물의 성장을 촉진시켜 수확고를 높이는 기술이다. 과학자들은 이 기술을 실현할수 있는 직류고전압종자처리장치도 훌륭히 설계제작하였다. 종전의 장치에 비하여 처리능력이 거의 2배로 높아진 이 장치는 종자에 대한 이온부

적과 주입, 정전기대전처리공정으로 연속적인 자극을 주게 되어있다. 또한 장치의 구조가 간단하므로 어디서나 쉽게 만들수 있다. 종전의 종자처리방법에 비하여 많은 로력과 자재를 절약함으로써 적은 원가로 큰 실리를 얻을수 있는 이 종자처리기술은 현재 수많은 단위들에 도입되어 농작물의 수확고를 높이는 데서 크게 은을 나타내고 있다.

많은 도입단위들의 경험에 의하면 씨뿌리기전에 종자를 이 기술로 처리하여 심으면 종자의 싹트는 힘을 높이고 생육기일을 앞당길수 있으며 정교도 수확고를 평균 알곡작물에서는 5~10%, 낱세 및 공작물에서는 10~15% 높일수 있었다고 한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의 주공전선인 하나인 농업전선의 승리를 과학기술적으로 담보할기 위한 과업을 안고 과학자들은 이미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최후고전압종자처리기술과 장치의 성능을 보다 높이는 데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풀기 위하여 피라는 사색과 탐구를 바쳐왔다.

차성일, 홍성일, 김영찬 등들이 비롯한 용공도입집단의 과학자들은 농업부문 기술일꾼들과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면서 여러 단위들에 나가 이 종자처리기술과 장치의 효과성과 성능을 확증하였으며 그것을 확대도입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쟁을 벌여왔다. 최근연구에만 하여도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당조직의 적극적인 지도안고 황해북도, 황해남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함경북도안의 농장들을 비롯하여 30여개 단위들에 이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농업생산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였다.

직류고전압종자처리기술은 지난해에 국가과학기술성으로 등록되었다. 다시 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할때 대한 올해공공사업의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지금 과학자들은 더 많은 단위들에 이 기술을 확대도입하기 위하여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실리가 큰 이 종자처리기술은 뜻깊은 올해의 농업생산에서 성과를 이룩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리명천

굴진을 확고히 앞세워 더 많은 석탄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석탄은 공업의 식량이며 석탄공업은 인민경제의 생명선입니다.》

공동사설과 공동구호에 제

순천지구청년관광련합기업소에서

순천지구청년관광련합기업소의 탄전들에 혁신의 기상이 나뉘고 있다. 련합기업소아래 탄광들의 일꾼들과 탄부들은 광학장마다에서 총동원투쟁을 벌여 2월계획을 빛나게 수행하고 그 기세로 3월에 들어와서도 연속전공, 연속달파와 같은 놀이 올리고 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탄광들의 일꾼들과 탄부들이 올해의 총동원투쟁에서 영예로운 승리가 되도록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서 진행하고 있다. 련합기업소안의 모든 탄광들에서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 있다. 2.8직동청년탄광의 일꾼들과 탄부들은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위훈의 새창조가 될 불라는 마음안고 광학장마다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어서고 있다. 탄광의 일꾼들은

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순천지구청년관광련합기업소와 덕천지구관광련합기업소의 일꾼들과 탄부들이 석탄생산을 늘리기 위한 투쟁을 과감하게 벌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경에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굴진에 열광을 집중하여 전망이 좋은 석탄밭들을 너럭히 마련해놓고 석탄생산을 힘있게 내밀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일꾼들은 요구되는 부속품들을 자체의 힘으로 마련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면서 운로 대개통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강하게 하고 있다. 청성청년탄광의 일꾼들과 탄부들은 2월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데서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 있다. 3월에 들어와서도 련합기업소의 탄광들에서는 석탄생산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있다. 당위원회는 지도밑에 련합기업소에서는 고도로 양양된 생산자대중의 창조력과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폭발시키나가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참신하게 진행해나가고 있다. 련합기업소의 당 및 행정일꾼들이 굴진소대들과 체단중대들을 하나씩 맡고 내려가 탄부들을 위훈창조로 불러일으키고서 집단적혁신을 일으켜 매

일 석탄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해나가고 있다. 5월과 11월의 일꾼들과 탄부들은 3월에도 석탄생산계획을 훌륭히 넘쳐 수행한데서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 있다. 3월에 들어와서도 련합기업소의 탄광들에서는 석탄생산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있다. 당위원회는 지도밑에 련합기업소에서는 고도로 양양된 생산자대중의 창조력과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폭발시키나가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참신하게 진행해나가고 있다. 련합기업소의 당 및 행정일꾼들이 굴진소대들과 체단중대들을 하나씩 맡고 내려가 탄부들을 위훈창조로 불러일으키고서 집단적혁신을 일으켜 매

의 힘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사업도 혁명적으로 내밀고 있다. 령대탄광과 신창청년탄광의 일꾼들과 탄부들도 공동사설과 공동구호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헌신적투쟁을 벌여 석탄생산에서 날마다 자랑찬 성과를 이룩해나가고 있다. 특파기자 리혁철

첫 전투부터 석탄생산실적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었다. 형률탄광과 신창청년탄광의 일꾼들과 탄부들도 공동사설과 공동구호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헌신적투쟁을 벌여 석탄생산에서 날마다 자랑찬 성과를 이룩해나가고 있다. 특파기자 리혁철

본사기자 리명천

조국의 대지를 넓혀나가는 투쟁에서 불굴의 정신력을 힘있게 과시

대 계 도 간 석 지 건 설 장 에 서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철석의 신념 안고

원추적의 기상이 넘치는 대계도간석지건설장! 사나운 파도와 싸우며 완공의 날을 앞당겨나가는 평안북도간석지건설현장기공의 일군들과 노동자들이 어떤 정신력의 강자, 백철불굴의 투사들인가는 오늘날의 투쟁이 그대로 말해주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지금 3호방조제공사를 마지막 단계에서 힘있게 추진하는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이것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보도에 접하고 원추적의 심정으로 대계도간석지를 힘있게 다그치고 있는 우리 인민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조국의 영원한 재부인 땅을 넓혀가는 것은 후손만대의 행복과 나라의 흥성번영을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새해공공사업에 받아들인 날련합기업소일군들은 한자리에 모여있었다.

우리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담력과 배정으로 당앞에 다진 맹세를 기어이 관철하자.

일군들의 가슴은 이런 심장의 결의로 세계를 넓혀가고있었다. 사실련합기업소앞에는 이제 몇달동안 3호방조제 마감막이구간 확장공사와 안전공사를 완전히 끝내고 내부방공사에 들어가야 하는 방대한 작업량이 남아있었다.

막들과 버려진 하어도 수십 만㎡가 있어야 하였다. 령하 20℃를 오르내리는 강추위는 공사에 적지 않은 난관을 조성하였다. 하지만 일군들의 열정과 믿음은 신심과 락관이 넘쳐있었다.

《용감한 바다의 정복자, 백철불굴의 투사, 이것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간석지건설자들에게 안겨주신 영예로운 칭호가 아닌까, 우리 장군님의 그 믿음과 사랑을 언제나 가슴에 안고 투쟁할 때 못해낼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안을 짜편취편 우리는 책임 일군의 목소리는 일군들의 마음을 더더욱 격동시켰다. 흥분된 일군들의 눈앞에는 것처럼 어려웠던 3호방조제 마감막이구간의 일들이 떠올랐다.

성난 파도와 건설자들 사이에 험악한 공방전이 벌어지던 끝에 서로 마주 향해 오는 제방 사이의 거리가 100여m에 이른 때였다. 그 좁은 물목으로 수역의 바다물이 울렁거리고 내리밀며 일으키는 파도에 의해 밀바다의 수심까지도 패어지고 제방바닥은 점점 침몰되어 나갔다. 하지만 누구도 물러서지 않았다.

바다가 이기나 우리가 이기나 어디 한번 못보자! 불굴의 정신력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강수힘을 날아 제방을 끝끝내 연결함으로써

바다물의 흐름을 멈추세우는 기적을 창조하게 하였다. 바다를 막는 사람들에겐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시며 온갖 온정을 다 베풀어주시고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신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이 있어 간석지건설자들의 심장은 활화산처럼 타올랐고 세상사람들을 놀라우는 기적이 창조된것이었다.

그때일을 돌이켜보는 일군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담력과 배정만 있으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공사기일을 무조건 보장할 열의로 가슴을 꿰뚫었다. 그들의 결의는 그대로 작전안에 반영되었다. 돌보장을 선행시키기 위한 대책이 취해지고 열음이 두터워져 얼어붙은 유리한 조건을 리용하여 내부방공사도 동시에 진행하기로 하였다. 한마디로 공사를 련계적으로 진행하자는 작전안이 세워졌다. 이것은 일군들의 전진인 지지를 받았다.

1월 6일 전투시작을 알리는 3만산발파의 폭음이 온 간석지벌을 들끓게 하였다. 단단의 전투준비를 갖추고 공격명령을 기다리고있던 련합기업소의 모든 령력이 공사장에 총집중되었다. 참으로 놀라운 화력이 공사장에 펼쳐졌다.

당의 부름에 물불을 가리랴! 련합기업소일군들의 화성인정지시어는 건설자들의 심장을 세차게 두드렸다.

공사장에 전개된 방출선전차들이 방파제의 일제사격과 같은 위력을 과시하였다.

붉은기들이 긴 방조제를 따라가며 뒤뚱하며 공사장은 하나의 거대한 붉은 기폭으로 퍼져가는 듯싶었다. 크고작은 속보판들에 혁신의 새 소식들이 날마다, 시간마다 날아왔다.

말그대로 공사장은 건설자들의 심장을 높여주는 전투장이었다. 련합기업소의 책임일군들은 제사장들을 하나씩 맡고 내려가 현물을 내내었다. 공사의 성과어는 바로 제사장들에서 어떻게 보장하는가에 달려있었다.

분전기체들의 만가등을 보장하는 것과 함께 더 많은 돌을 확보하기 위한 전투가 제사장들에서 벌어졌다.

돌보장은 넘어달라! 제사장마다에서 이런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돌진공들은 작업기를 역세로 끌어잡고 굴진속도를 높이고 굴파공들은 앞선 방법을 받아들여 발파시기를 높여나갔으며 자동차운전자들은 매일 수백km를 달려며 돌을 수송하였다. 또 다시 3만산, 4만산발파의 장쾌한 폭음이 공사장을 휘둘렀다. 이것은 건설자들의 사기를 더욱 높여주었다.

그러던 어느날 무서운 강추위가 공사장의 모든것을 얼어붙게 하였다. 자동차, 굴착기들의 가동률이 떨어지기 시작하

였다. 이때 일군들과 운전사들은 날이 풀리기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특히 청강기계화사업소를 비롯한 여러 사업소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앞선 기술을 받아들여 강추위속에서도 분전기체들의 만가등을 보장하여 공사기일을 앞당겨나갔다.

이런 투쟁기풍이 어제 3호방조제 마감막이구간 확장공사장에서만 발휘된것이 아니라 대계도간석지건설장 대계도간석지건설장에서도 대계도의 불길기 새차례 일었다. 10여km를 에둘러가 아니라 얼어붙은 얼음판을 리용하여 돌을 실어나르지는 대단한 발기에 따라 시작된 돌운반투는 참으로 불만 하였다. 낮이면 얼음판으로 깔렸던 얼음이 어찌던 분전기체들의 행렬이 공사장에 이르러 온 광경을 쫓고 밤이면 곳곳에서 타오른 쇠불이 뜨겁도록 들의 앞길을 밝혔다.

우리 장군님께서 아시는 간석지건설사!

남다른 이공지와 영예를 안고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치는 련합기업소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으로 여러 지구의 중간제방공사를 앞당겨 끝냈다는 돌보장이 열렸다.

조국과 인민이 영원히 기억하고 추억할 만한 기적과 위훈의 창조자들이여 대계도간석지공사장에 반드시 승리의 기발이 휘날리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윤호호

다 사 기 계 화 사 업 소 에 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자연개조사업은 우리 세대뿐 아니라 후대들을 위한 만년대계의 사업입니다.》

대계도간석지건설장 어디를 가나 그러하듯이 3호방조제공사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다사기계화사업소 일군들과 전투원들의 기세 또한 하늘을 찌를듯 높다. 가차도 없이 창조된 대계도의 제사장들은 물론 자동차운전자들의 수리정비와 부속품가공전투로 들끓는 전투장에서 불꽃이 튀어 나오고있다. 긴 팔을 구부렸다 폈다 하며 쉬임없이 버럭을 폭풍 퍼내는 굴착기들, 제철을 뿜기라도 하듯 돌을 넘쳐나고 있고 기운차게 달리는 자동차들...

혁명전대고조의 불길드높이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일대 공세를 벌일 때 대한 공동사업과 어머니당의 뜻깊은 10월을 행복의 웃음소리가 장안에 넘치는 기쁨과 환희의 10월로 빛내이고 한 걸음로동계급의 호소는 사업소일군들과 전투원들의 심장에 불을 달았다.

본사기자 윤호호

—달리고 또 달려 경애하는 장군님께 맹세한대로 3호방조제공사를 제기일에 무조건 끝내자.

사업소의 일군들과 전투원들은 이렇듯 불타는 맹세로 심장을 꿰뚫었다.

일군들의 말없는 이신작적,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는 백철불굴의 혁명정신은 전투원들을 위훈창조로 떠미는 위력한 정치사업으로 되었다.

김성옥동무를 비롯한 사업소의 일군들은 전투의 승패가 자기들에게 달려있다고 하면서 예비부속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단위를 다녀갔으며 과학자, 연구사들과의 련계일에 메달을 비롯한 부속품들도 자체로 만들수 있게 하였다.

자동차운전자들 사이에 말없는 경쟁이 벌어지고 집단적혁신의 불길기 새차례 타올라 놀라운 혁신이 련이어 창조되었다. 하루에 52량의 돌을 실어나르는 견예없는 혁신을 창조한 대계도간석지건설장 김철남동무, 대중적기술혁신으로 자동차수리에 필요한 부속품을 원만히 보장해가고있는 수리작업반의 전투원들...

작디찬 바다바람이 사납게 몰아치던 어느날 이른새벽, 현장으로 나가던 사업소기공장은 얼마 못 가서 걸음을 멈추었다. 자동차들이 세워진 마당의 도둑불알에서 무엇인가를 놓고 손질하고있는 두사람의 모습이 보였단것이다.

본사기자 문길수



조국의 대지를 넓혀가는 간석지건설장에 혁명적기상 내려친다.

본사기자 적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애국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이고 투신이다.》

대계도간석지건설장 가차도제석장에 대한 취재를 마친 내가 현장지휘부에 들렀을 때였다. 알뜰한 손길이 간 사물집안을 둘러보던 나의 눈길은 벽에서 떼어졌다. 현장에서 일하는 전투원들의 하루일과표가 붙여있는 것이었다. 그때 방에 들어선 한 인물이 일과표앞에 서있는 나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일 과 표 앞 에 서

《이젠 그 일과표가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일과표가 필요없었다? 그게 일군들은 어떤 사연을 들려주었다. 지난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간석지건설장을 다녀가신 그 날부터 일군들과 전투원들의 열의는 비상히 높아졌다. 하루파제를 넘쳐 수행하고도 스스로 밤낮이 따로없이 운전대를 잡고 돌을 나른 자동차들은

내달리는 이들에게는 일과표에 정해진 작업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들은 종이장우에 써넣은 일과표가 아니라 자기들의 심장속에 새겨넣은 량심의 《일과표》대로 힘차게 달려나갔다는 것이리라. 그렇다. 건설자들이 심장에 새긴 일과표! 정녕 그것은 경애하는 장군님께 결의하신 3호방조제공사완공의 그날을 앞당겨주는 이들의 애국의 시간표로 나의 가슴에 파고들었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대계도간석지건설은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한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여기는 대계도간석지 3호방조제공사장이다. 지금 여기서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보도를 퍼붓는 가슴마다에 집힌 간석지건설자들이 마감막이구간에 대한 장성공사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드넓은 남바다를 켈질러나간 방조제, 그우로 꼬리를 물고 달리는 대형화물자동차들, 뿜어내리는 붉은기...

정녕 그것은 경애하는 장군님께 결의하신 3호방조제공사완공의 그날을 앞당겨주는 이들의 애국의 시간표로 나의 가슴에 파고들었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대계도간석지건설을 빨리 끝내자면 국가적인 관심을 끌고 공사에 필요한 설비, 자재들을 보장해주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일마진 이른새벽이었다. 돌보장이 걱정되어 가차도제석장에 나왔던 련합기업소책임일군은 합마질소리에 이끌려 그러고 향하였다.

(이 새벽에 누가 저렇게?) 가까이 다가갔던 그는 첫 새벽의 주인공들을 알아보려고 감쪽 감쪽했다. 그들은 여기 대계도간석지건설장에 달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방조제공사완공의 그날을 앞당겨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믿음에 보답하고자 모두가 밤낮이 따로없이 뛰고 또 뛰고있습니다.》

현장에서 전투를 지휘하던 백철동무가 자랑스럽게 하는 말이다.

어제 그렇지 않았다. 간석지건설장을 찾았으며 건설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여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도 간석지건설자입니다.》

그들은 대계도간석지건설을 하루빨리 끝낼 때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는데서 건설자들과 똑같은 마음이었다.

이런 뜨거운 마음을 안고 공사장에 모든것을 바쳐가는 사람들이 어제 그들은이었던가.

본사기자

기술을 혁신하여 제품의 질을 높인다

강 동 기 초 소 품 공 장 에 서

강동기초식품공장에서 설비들을 현대적으로 개조하고 간조과 원장을 비롯한 질좋은 기초식품을 많이 생산하여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생산자대중의 무궁무진한 지혜와 창조성을 적극 발동하면 그들속에서 가지고있는 기술혁신안과 창의안, 합리화안 이외 따지지 않을 수 있으며 경영업의 현대화를 빠른 속도로 추진시킬수 있습니다.》

공장에서 낡은 설비들을 현대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투쟁을 벌일 때였다. 당조직의 지도원이 공장장모부에서는 종업원들의 창조적지혜를 적극 발동하여 전반적인 생산공정을 현대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목표를 높이 내세웠다. 그러나 처음에 일부 종업원들은 자제로 생산공정의 개조조치를 폐 해낼수 있겠는가고 우려하였다.

공장장모부에서는 기술자들과 노동자들속에서 생산공정을 기술개조하는데 필요한 자그마한 착상이라도 나오면 그것을 적극 지지해주고 기술적능력을 집중하여 끝까지 실현되도록 도우면서 모두가 이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게 하였다. 이 과정

에 많은 설비들이 기술개조되어 기초식품의 위생학적요구를 더욱 담보하게 되었다. 이에 기초하여 공장에서서 첨단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장성산업정에 자동조종계를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을 벌릴 때의 일이었다.

공장장모부에서는 어려운 기술혁신을 진행하는 조건에서 고대순책임기공에게 그것을 책임지고 실현할때 대한 분공을 준다 하여 기술자들과 기능이 높은 노동자들을 불러주어 훌륭히 완성되도록 도와주었다.

반장이 따로 없는 긴장한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에는 언제나 윤재영초급당비서와 박영복지배인을 비롯한 공장 일군들이 함께 있었다. 일군들은 필요한 자재와 부속품들을 제때에 보장해주고 과학기술사들도 구해다주면서 기술자들이 신심을 가지고 기술혁신에 달려볼도록 이끌었다. 그들이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를 풀지 못해 예를 먹을 때 공장의 일군들은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연구사들과 긴밀한 련계를 위해주었다. 그리하여 기술혁신과제 성과적으로 수행되게 하였다. 이런 속에서 그들은 자동조종계를 완성하는데 성공하였다. 장성산업정의 자동조종계의 완성은 현대적과학기술

에 기초한 자력쟁쟁의 불길은 더 세차게 지퍼주는 불개로 되었다. 자체의 기술력으로는 해마다 어렵다고만 생각하던 기술혁신과제가 수행되자 종업원들의 열의는 비할바없이 높아지고 여러가지 기술혁신안들이 연방 쏟아져나왔다.

그때 때마다 일군들은 로동자, 기술자들의 그그마한 착상도 귀담아들어주며 격이 생산에서 온을 내도록 격조 꾸미고 있었다. 그리고 종업원들속에서 가치있는 기술혁신안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잘하고있는 긍정적인 소생활을 찾아내어 적극 일반화하면서 그들의 창조적열의를 불러일으켰다. 이에 고무되어 분발해나선 공장의 기술자들은 자제로 장성산업정의 온도조절장치의 컴퓨터화를 비롯한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실현하여 기초식품의 질을 훨씬 높이고 그 위생학적요구가 철저히 담보되게 하였다.

기술혁신사업에서 성과가 이룩될 때마다 초급당위원회에서 은 공장이 들춰내려 혁신자축하모임도 조직하고 현장방문과 속보를 통하여 널리 소개한 전하면서 대중의 열의를 더욱 북돋아주었다. 그리하여 더 많은 기술혁신안들이 창안도입되도록 하고있다.

특약기자 최재남

이들처럼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내밀자

안 주 시 윤 송 리 당 위 원 회 사 업 에 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3대혁명붉은기띠를 휘둘러 빨리기 위하여서는 결의의표지를 잘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지만 그것을 철저히 실현하는것이 더 중요함입니다.》

이러한 투쟁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정신이 깰려있는 안주시 윤송리 당위원회는 대대적인 단결을 결의하였다. 이것은 3대혁명붉은기띠를 휘둘러 빨리기 위하여서는 결의의표지를 잘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함입니다. 《3대혁명붉은기띠를 휘둘러 빨리기 위하여서는 결의의표지를 잘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함입니다.》

이러한 투쟁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정신이 깰려있는 안주시 윤송리 당위원회는 대대적인 단결을 결의하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대계도간석지건설을 빨리 끝내자면 국가적인 관심을 끌고 공사에 필요한 설비, 자재들을 보장해주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러한 투쟁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정신이 깰려있는 안주시 윤송리 당위원회는 대대적인 단결을 결의하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도 간석지건설자입니다.》

이러한 투쟁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정신이 깰려있는 안주시 윤송리 당위원회는 대대적인 단결을 결의하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도 간석지건설자입니다.》

이러한 투쟁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정신이 깰려있는 안주시 윤송리 당위원회는 대대적인 단결을 결의하였다.

본사기자

전쟁원흉의 상투적인 침략수법

자살적인 대결광증

미제가 남조선피호전광증과 야합하여 《키 리콜》, 《독수리》 합동 군사연습을 광범적으로 벌이고있다.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이 합동군사연습에는 남조선과 해외에 기지를 둔 미 제침략군의 방대한 무력 그리고 남조선 피호해공군과 지방행정기관,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경찰, 군수 및 민수업종까지 동원되고있다. 미제는 합동군사연습에 앞서 조선동서남해에 유도탄구축함, 핵동력잠수함, 도크상륙함을 비롯한 수많은 전투함정들을 기동전개시켰다. 이 합선전단들은 남조선피호군 1, 2, 3 함대들과 협동밀에 연합해상기동전, 상륙작전, 해상대침투연습을 벌이고있다. 주일미군기지에서부터 출격한 전투 폭격기, 추격습격기들이 남조선에 연방 날아들고있으며 남조선강점 미제 7 항공군 비행대들이 피호공군비행대들과의 협동공격에 중심대상물집중타격, 근접항공지원, 공중전투, 해상지원연습을 광범적으로 벌이면서 살벌한 전쟁분위기를 고취하고있다. 이번 《키 리콜》,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우리 공화국을 불의에 선제타격하기 위한 선제공격전쟁연습이며 핵시합전이다. 조선반도에서 모험적인 불장난소동을 벌여놓은 미제가 남조선피호전광증과 공모하여 언제, 어떻게 우리 나라를 불의에 침공할지 누구도 알 수 없다. 다른 나라를 불의에 침공하는 것은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이 즐겨쓰는 상투적인 전쟁수법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침략전쟁에서 저들 무력의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범피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측을 불의에 침공한다.

미제가 남의 나라 지경가까이에 방대한 침략무력을 끌어들이는 것은 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선제공격이다. 일반적으로 전쟁은 리해관계가 대립되는 국가들사이 또는 한 나라안에서 서로 다른 세력들사이에 벌어지는 심각한 정치군사적대결이다. 제국주의 특히 미제는 침략과 전쟁의 원흉이며 평화의 주되는 원수이다. 그들이 무력증강과 무장장비현대화에 발목잡고 매여달리는 것은 군사력우세를 보장하고 전쟁도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미제는 침략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지역에서 총알발이로 내세울 수 있는 전쟁수인, 돌격대들을 만들어놓는 한편 저들의 방대한 침략무력을 들이밀어 인민의 시각에 전쟁을 도발할수 있는 준비를 갖춘다. 오늘 미제는 남조선피호들과 일본반동들을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수행에 총알받이, 돌격대로 써먹으려 하고있다. 미제는 제 2의 조선전쟁을 도발하기 위하여 남조선과 그 주변에 대규모침략무력을 항시적으로 배치해두고있다. 이 와중에 이 지역에서 전쟁연습을 빈번히 벌이면서 미국본토와 태평양지역 기동타격수단들을 동원하고있다. 미제가 방대한 병력과 최신무장장비들을 《키 리콜》,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에 집중투입하고있는것은 이 연습의 공격적성격과 위험성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미국이 무력증강책동과 전쟁연습을 벌이면서 《평화》타령을 늘어놓는 것은 다른 나라에 대한 불의의 침공기도를 감추기 위한 연막이다. 침략전쟁을 자주 일으키는 세력일수록 귀찮은 소리들을 많이 늘어놓는다. 마치도 저들이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큰 관심》을 가지고있으며 그것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있다는 나라 지경가까이에 무력을 증강 배치하고있는것처럼 떠드는 미국의 속심은 언젠가 전쟁도발에 있다. 20세기 후반기와 새 세기에 들어와 미제가 도발한 전쟁들은 모두

《평화》와 《안보》의 간판밑에 불의에 강행되었다. 하지만 미제가 일으킨 침략전쟁들로서 하여 해당 지역과 세계의 평화보장문제는 더욱 어려운 일로 되고 복잡한 사태들만 빚어진다것이지나오는 력사와 오늘의 현실이 보여주는 교훈이다. 미제는 남조선피호전광증과 《키 리콜》,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벌이면서 《년례적인 훈련》이니, 《방어능력개선》이니 뭐니 하고 허튼말을 불어대고있다. 상륙과 불의의 침공을 위주로 하는 합동군사연습이 전쟁도발에 목적을 둔것이 아니라 조선반도의 《군사적균형유지》와 《평화보장》을 위한것처럼 묘사하는 적들의 기만적인 술책은 눈감고 아용하는 격이다. 미제가 자주 벌리는 각종 전쟁연습들은 불의의 침공작전을 실현에 옮기기 위한 기본공군이다. 전쟁연습과정에는 상대측과의 물리적 타격 또는 군사적충돌이 빚어질수 있는 위험점이 조성된다. 이러한 사태를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구실로 전면전쟁을 시도하는것은 미제가 늘 써먹는 수법이다. 구름이 자주 끼면 비가 오기마련이듯이 미제가 군사연습들을 끊임없이 벌리는 곳에서는 어느때든 전쟁이 일어날수 있다. 그것은 미제의 전쟁력사가 실증해준다. 지난 시기 미제는 남조선피호당과 당파하여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팀 스피리트》, 《솔지 포커스 플랜》, 《키 리콜》, 《독수리》 등 각이한 명칭들을 단 합동군사연습들을 년례적으로 벌여왔다. 이러한것들이 북침전쟁을 불의에 도발하기 위한 전쟁연습들이라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제가 남조선피호당과 또다시 《키 리콜》,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벌여놓은것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끝내 강행하려는 그들의 범죄적용제의 발로이다. 올해초에 우리 공화국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화협정체결제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미제는 우리의 이 제안에 정면대결하여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면서 사태를 전쟁경계로 몰아가고있다. 심각한 정치경제적위기에의 출로를 전쟁에서 찾는것은 미국의 생존방식이다. 지금 미국의 경제위기는 매우 심각하다. 미국이 금융 및 경제위기에 빠져서 벗어나기 위해 모자름을 쓰고있지만 전망은 보이지 않고있다. 미형정부에 대한 자국민들의 지지는 높은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있다. 대외적으로도 대미감정이 급속히 나빠지고있다. 대미공격시도들이 계속 나타나고있다. 대내적으로도 궁지에 몰린 미국은 그를 모면하기 위해 남조선에서 또다시 모험적인 전쟁연습을 벌여놓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불의의 무력침공을 기도하고있다. 그러나 미제는 오산하고있다. 일은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것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전쟁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위대한 선군정치, 막강한 지위적국방력이 있는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일선전열의 백기가 있는 우리 공화국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의지는 강철같이 굳어져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선제타격을 불의에 침공하는 적들의 침략수법을 일격에 격파해내기 위한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적들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추지고있다. 만약 미제가 우리 공화국을 불의에 침공한다면 그들은 비참한 종말을 고하게 될것이다.

침략전쟁을 끝내 강행하려는 그들의 범죄적용제의 발로이다. 올해초에 우리 공화국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화협정체결제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미제는 우리의 이 제안에 정면대결하여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면서 사태를 전쟁경계로 몰아가고있다. 심각한 정치경제적위기에의 출로를 전쟁에서 찾는것은 미국의 생존방식이다. 지금 미국의 경제위기는 매우 심각하다. 미국이 금융 및 경제위기에 빠져서 벗어나기 위해 모자름을 쓰고있지만 전망은 보이지 않고있다. 미형정부에 대한 자국민들의 지지는 높은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있다. 대외적으로도 대미감정이 급속히 나빠지고있다. 대내적으로도 궁지에 몰린 미국은 그를 모면하기 위해 남조선에서 또다시 모험적인 전쟁연습을 벌여놓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불의의 무력침공을 기도하고있다. 그러나 미제는 오산하고있다. 일은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것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전쟁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위대한 선군정치, 막강한 지위적국방력이 있는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일선전열의 백기가 있는 우리 공화국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의지는 강철같이 굳어져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선제타격을 불의에 침공하는 적들의 침략수법을 일격에 격파해내기 위한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적들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추지고있다. 만약 미제가 우리 공화국을 불의에 침공한다면 그들은 비참한 종말을 고하게 될것이다.

반공화국대결광증에 사로잡힌 일본반동들이 제 죽을줄도 모르고 물범범술범범하고있다. 그들이 《북조선의 위태로움에 대해》 한다는 미명하에 《미사일방위체계한비》니 뭐니 하고 분주함을 피우고있는 사실을 통해서도 그것을 알수 있다. 최근 영국신문 《가디언》은 일본항공 《자위대》내에서 《적》이 공격해온다면 《행운》으로 될것이라느니, 미사일이 일단 사정권내에 들어오면 《기회》가 있을것이라느니 하는 희미한 소리가 튀어나오는데 대해 전하였다. 일본군부채층이 말한 《적》이란 우리 공화국을 넘두에 둔것이며 그 무슨 《공격》나발을 불어댄것은 조선제침의 포성을 울리기 위한 전쟁수입을 마련하기 위한것이다. 하루강까지 범 무서움출 모른다고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제침열에 들떠 황당한 소리를 방망 쥘치는것을 보면 현실을 망각해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일본반동들이 미국상선의 도움으로 일본본토와 해상에서 《페트리오트》요격미사일을 배비한것을 가지고 기고만장하여 격기를 부리는것 같은데 가스통이 짝이 없다. 그들에게도 눈과 귀가 있다면 얼마전에 미국이 미사일요격시험에서 또다시 실패한데 대해 알고있을것이다. 막대한 비용을 들인데다가 자리까지 정해진 미사일요격 시험조차 못한것으로 하여 미국에서도 시기가 많은 그때의 과잉도 없는 요격미사일을 믿고 허세를 부리는 일본반동들의 망상은 반공화국대결광증에 사로잡힌자들의 히스테리적발작에 지나지 않는다. 문제는 일본반동들이 군사대국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한사코 우리를 어찌해볼라 한다는데 있다. 일본반동들은 지난 시기 군사대국화와 제침야망에 사로잡혀 우리의 허구적인 《미사일위협》설을 제창하면서 미국의 미사일방위체계 개발에 가담해나섰다. 그들은 우리의 《미사일위협》을 결코 만도미사일공격에 대비한 《적》기지공격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니, 미사일발사기를 공격하기 위한 일미동맹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니 뭐니 하고 떠들고있다. 이를 통해 일본반동들은 저들의 군사대국화,

해외팽창정책을 합리화해볼라 하고있다. 이것은 그들이 독을 품고 조선제침을 기도하고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번에 일본반동들이 그 누구의 《공격》을 운운하며 《행운》이요, 《기회》요 하고 일박한 너드리를 한것은 대조선제침격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낸것으로서 그들의 반공화국대결광증이 어느 지경까지 이르렀는가를 가능하게 해준다. 가관은 일본반동들이 미사일방위체계개발정책을 손수동행자인 미국을 그 누구의 《미사일공격》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알방한 《우에심》을 내내고 추진하고있는것이다. 그야말로 소가 웃다 꾸미미럴질 노릇이 아닐수 없다. 그러나 실지로 거기에는 미국상선의 미사일방위체계추적정책에 가담하여 어부지리를 얻으려는 간혹한 술책이 깔려있다. 큰 나라를 등에 업고 군국주의야망을 이루어 보려는것은 일본특유의 고질적악습이며 침략수법이다. 일본이 미국의 《반테로전》에 합세해나섰고 그를 명분삼아 군사대국화를 다지고 《자위대》의 해외군사활동정형을 쌓음으로써 군국주의야망실현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는데 그 본심이 있다. 조선은 일본반동들의 해외침략의 첫 대상으로 정해져있다. 그들은 조선제침으로 해외침략의 막을 울리고 아시아와 세계전부의 길에 뛰어내려 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대결정책에 열을 올리고있는것은 그 때문이다. 우리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대결광증이 무모한 단계에 도달하고있는데 대해 결코 수수방관할수 없다. 대조선제침의식이 끝수 초 한 일본반동들이 무모하게 날뛰도록 우리 군대와 인민의 대일적개성을 천백배로 높이고있다. 일본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대일감정을 똑바로 보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일본의 대결정책은 스스로 화를 청하는 자살행위이다. 일본은 허튼 망상을 버리고 백해무익한 대결소동을 당장 걸어치워야 한다.

8 000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였다. 이에 따라 나라에서 2021년까지 어린이영양실조를 완전히 근절하고 산모와 갓난아이 사망률을 현저히 줄이며 빈곤율을 현재의 3.6%로부터 1.3%로 낮추기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게 된다. 한편 배우에서 살림집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쏟고있다. 정부는 지난해 이 부문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늘여 16만

다른 나라를 불의에 침공하는 것은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이 즐겨쓰는 상투적인 전쟁수법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침략전쟁에서 저들 무력의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범피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측을 불의에 침공한다. 미제가 남의 나라 지경가까이에 방대한 침략무력을 끌어들이는 것은 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선제공격이다. 일반적으로 전쟁은 리해관계가 대립되는 국가들사이 또는 한 나라안에서 서로 다른 세력들사이에 벌어지는 심각한 정치군사적대결이다. 제국주의 특히 미제는 침략과 전쟁의 원흉이며 평화의 주되는 원수이다. 그들이 무력증강과 무장장비현대화에 발목잡고 매여달리는 것은 군사력우세를 보장하고 전쟁도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미제는 침략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지역에서 총알발이로 내세울 수 있는 전쟁수인, 돌격대들을 만들어놓는 한편 저들의 방대한 침략무력을 들이밀어 인민의 시각에 전쟁을 도발할수 있는 준비를 갖춘다. 오늘 미제는 남조선피호들과 일본반동들을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수행에 총알받이, 돌격대로 써먹으려 하고있다. 미제는 제 2의 조선전쟁을 도발하기 위하여 남조선과 그 주변에 대규모침략무력을 항시적으로 배치해두고있다. 이 와중에 이 지역에서 전쟁연습을 빈번히 벌이면서 미국본토와 태평양지역 기동타격수단들을 동원하고있다. 미제가 방대한 병력과 최신무장장비들을 《키 리콜》,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에 집중투입하고있는것은 이 연습의 공격적성격과 위험성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미국이 무력증강책동과 전쟁연습을 벌이면서 《평화》타령을 늘어놓는 것은 다른 나라에 대한 불의의 침공기도를 감추기 위한 연막이다. 침략전쟁을 자주 일으키는 세력일수록 귀찮은 소리들을 많이 늘어놓는다. 마치도 저들이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큰 관심》을 가지고있으며 그것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있다는 나라 지경가까이에 무력을 증강 배치하고있는것처럼 떠드는 미국의 속심은 언젠가 전쟁도발에 있다. 20세기 후반기와 새 세기에 들어와 미제가 도발한 전쟁들은 모두

《평화》와 《안보》의 간판밑에 불의에 강행되었다. 하지만 미제가 일으킨 침략전쟁들로서 하여 해당 지역과 세계의 평화보장문제는 더욱 어려운 일로 되고 복잡한 사태들만 빚어진다것이지나오는 력사와 오늘의 현실이 보여주는 교훈이다. 미제는 남조선피호전광증과 《키 리콜》,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벌이면서 《년례적인 훈련》이니, 《방어능력개선》이니 뭐니 하고 허튼말을 불어대고있다. 상륙과 불의의 침공을 위주로 하는 합동군사연습이 전쟁도발에 목적을 둔것이 아니라 조선반도의 《군사적균형유지》와 《평화보장》을 위한것처럼 묘사하는 적들의 기만적인 술책은 눈감고 아용하는 격이다. 미제가 자주 벌리는 각종 전쟁연습들은 불의의 침공작전을 실현에 옮기기 위한 기본공군이다. 전쟁연습과정에는 상대측과의 물리적 타격 또는 군사적충돌이 빚어질수 있는 위험점이 조성된다. 이러한 사태를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구실로 전면전쟁을 시도하는것은 미제가 늘 써먹는 수법이다. 구름이 자주 끼면 비가 오기마련이듯이 미제가 군사연습들을 끊임없이 벌리는 곳에서는 어느때든 전쟁이 일어날수 있다. 그것은 미제의 전쟁력사가 실증해준다. 지난 시기 미제는 남조선피호당과 당파하여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팀 스피리트》, 《솔지 포커스 플랜》, 《키 리콜》, 《독수리》 등 각이한 명칭들을 단 합동군사연습들을 년례적으로 벌여왔다. 이러한것들이 북침전쟁을 불의에 도발하기 위한 전쟁연습들이라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제가 남조선피호당과 또다시 《키 리콜》,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벌여놓은것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끝내 강행하려는 그들의 범죄적용제의 발로이다. 올해초에 우리 공화국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화협정체결제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미제는 우리의 이 제안에 정면대결하여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면서 사태를 전쟁경계로 몰아가고있다. 심각한 정치경제적위기에의 출로를 전쟁에서 찾는것은 미국의 생존방식이다. 지금 미국의 경제위기는 매우 심각하다. 미국이 금융 및 경제위기에 빠져서 벗어나기 위해 모자름을 쓰고있지만 전망은 보이지 않고있다. 미형정부에 대한 자국민들의 지지는 높은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있다. 대외적으로도 대미감정이 급속히 나빠지고있다. 대내적으로도 궁지에 몰린 미국은 그를 모면하기 위해 남조선에서 또다시 모험적인 전쟁연습을 벌여놓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불의의 무력침공을 기도하고있다. 그러나 미제는 오산하고있다. 일은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것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전쟁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위대한 선군정치, 막강한 지위적국방력이 있는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일선전열의 백기가 있는 우리 공화국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의지는 강철같이 굳어져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선제타격을 불의에 침공하는 적들의 침략수법을 일격에 격파해내기 위한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적들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추지고있다. 만약 미제가 우리 공화국을 불의에 침공한다면 그들은 비참한 종말을 고하게 될것이다.

반공화국대결광증에 사로잡힌 일본반동들이 제 죽을줄도 모르고 물범범술범범하고있다. 그들이 《북조선의 위태로움에 대해》 한다는 미명하에 《미사일방위체계한비》니 뭐니 하고 분주함을 피우고있는 사실을 통해서도 그것을 알수 있다. 최근 영국신문 《가디언》은 일본항공 《자위대》내에서 《적》이 공격해온다면 《행운》으로 될것이라느니, 미사일이 일단 사정권내에 들어오면 《기회》가 있을것이라느니 하는 희미한 소리가 튀어나오는데 대해 전하였다. 일본군부채층이 말한 《적》이란 우리 공화국을 넘두에 둔것이며 그 무슨 《공격》나발을 불어댄것은 조선제침의 포성을 울리기 위한 전쟁수입을 마련하기 위한것이다. 하루강까지 범 무서움출 모른다고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제침열에 들떠 황당한 소리를 방망 쥘치는것을 보면 현실을 망각해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일본반동들이 미국상선의 도움으로 일본본토와 해상에서 《페트리오트》요격미사일을 배비한것을 가지고 기고만장하여 격기를 부리는것 같은데 가스통이 짝이 없다. 그들에게도 눈과 귀가 있다면 얼마전에 미국이 미사일요격시험에서 또다시 실패한데 대해 알고있을것이다. 막대한 비용을 들인데다가 자리까지 정해진 미사일요격 시험조차 못한것으로 하여 미국에서도 시기가 많은 그때의 과잉도 없는 요격미사일을 믿고 허세를 부리는 일본반동들의 망상은 반공화국대결광증에 사로잡힌자들의 히스테리적발작에 지나지 않는다. 문제는 일본반동들이 군사대국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한사코 우리를 어찌해볼라 한다는데 있다. 일본반동들은 지난 시기 군사대국화와 제침야망에 사로잡혀 우리의 허구적인 《미사일위협》설을 제창하면서 미국의 미사일방위체계 개발에 가담해나섰다. 그들은 우리의 《미사일위협》을 결코 만도미사일공격에 대비한 《적》기지공격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니, 미사일발사기를 공격하기 위한 일미동맹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니 뭐니 하고 떠들고있다. 이를 통해 일본반동들은 저들의 군사대국화,

해외팽창정책을 합리화해볼라 하고있다. 이것은 그들이 독을 품고 조선제침을 기도하고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번에 일본반동들이 그 누구의 《공격》을 운운하며 《행운》이요, 《기회》요 하고 일박한 너드리를 한것은 대조선제침격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낸것으로서 그들의 반공화국대결광증이 어느 지경까지 이르렀는가를 가능하게 해준다. 가관은 일본반동들이 미사일방위체계개발정책을 손수동행자인 미국을 그 누구의 《미사일공격》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알방한 《우에심》을 내내고 추진하고있는것이다. 그야말로 소가 웃다 꾸미미럴질 노릇이 아닐수 없다. 그러나 실지로 거기에는 미국상선의 미사일방위체계추적정책에 가담하여 어부지리를 얻으려는 간혹한 술책이 깔려있다. 큰 나라를 등에 업고 군국주의야망을 이루어 보려는것은 일본특유의 고질적악습이며 침략수법이다. 일본이 미국의 《반테로전》에 합세해나섰고 그를 명분삼아 군사대국화를 다지고 《자위대》의 해외군사활동정형을 쌓음으로써 군국주의야망실현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는데 그 본심이 있다. 조선은 일본반동들의 해외침략의 첫 대상으로 정해져있다. 그들은 조선제침으로 해외침략의 막을 울리고 아시아와 세계전부의 길에 뛰어내려 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대결정책에 열을 올리고있는것은 그 때문이다. 우리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대결광증이 무모한 단계에 도달하고있는데 대해 결코 수수방관할수 없다. 대조선제침의식이 끝수 초 한 일본반동들이 무모하게 날뛰도록 우리 군대와 인민의 대일적개성을 천백배로 높이고있다. 일본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대일감정을 똑바로 보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일본의 대결정책은 스스로 화를 청하는 자살행위이다. 일본은 허튼 망상을 버리고 백해무익한 대결소동을 당장 걸어치워야 한다.

8 000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였다. 이에 따라 나라에서 2021년까지 어린이영양실조를 완전히 근절하고 산모와 갓난아이 사망률을 현저히 줄이며 빈곤율을 현재의 3.6%로부터 1.3%로 낮추기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게 된다. 한편 배우에서 살림집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쏟고있다. 정부는 지난해 이 부문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늘여 16만

본사기자

제 11기 제 3차회의 폐막

【베이징 3월 14일 발 조선 중앙통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11기 제 3차회의가 14일 베이징의 인민대회장에서 폐막되었다. 호프동지를 비롯한 중국의 당과 국가지도간부들, 대표들이 회막회의에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정부사업보고에 관한 결의, 2009년 인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집행결과 2010년 인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에 관한 결의,

2009년 중앙 및 지방에 산 집행결과와 2010년 중앙 및 지방예산에 관한 결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사무보고에 관한 결의들이 채택되었다. 회의에서는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각급 지방인민대표대회 선진법수정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결정 등이 채택되었다.

회장에서 유대인 《정착촌》을 계속 확장하려는 이스라엘의 행동을 비난하였다. 최근 이스라엘당국이 푸드 스납부의 강제지역에 112동의 유대인살림집을 새로 건설할 계획을 발표함과 관련하여 성명은 이것을 국제적노력을 방해하는 그릇된 행위라고 비판하였다.

회장에서 유대인 《정착촌》을 계속 확장하려는 이스라엘의 행동을 비난하였다. 최근 이스라엘당국이 푸드 스납부의 강제지역에 112동의 유대인살림집을 새로 건설할 계획을 발표함과 관련하여 성명은 이것을 국제적노력을 방해하는 그릇된 행위라고 비판하였다.

회장에서 유대인 《정착촌》을 계속 확장하려는 이스라엘의 행동을 비난하였다. 최근 이스라엘당국이 푸드 스납부의 강제지역에 112동의 유대인살림집을 새로 건설할 계획을 발표함과 관련하여 성명은 이것을 국제적노력을 방해하는 그릇된 행위라고 비판하였다.

회장에서 유대인 《정착촌》을 계속 확장하려는 이스라엘의 행동을 비난하였다. 최근 이스라엘당국이 푸드 스납부의 강제지역에 112동의 유대인살림집을 새로 건설할 계획을 발표함과 관련하여 성명은 이것을 국제적노력을 방해하는 그릇된 행위라고 비판하였다.

본사기자

회장에서 유대인 《정착촌》을 계속 확장하려는 이스라엘의 행동을 비난하였다. 최근 이스라엘당국이 푸드 스납부의 강제지역에 112동의 유대인살림집을 새로 건설할 계획을 발표함과 관련하여 성명은 이것을 국제적노력을 방해하는 그릇된 행위라고 비판하였다.

회장에서 유대인 《정착촌》을 계속 확장하려는 이스라엘의 행동을 비난하였다. 최근 이스라엘당국이 푸드 스납부의 강제지역에 112동의 유대인살림집을 새로 건설할 계획을 발표함과 관련하여 성명은 이것을 국제적노력을 방해하는 그릇된 행위라고 비판하였다.

회장에서 유대인 《정착촌》을 계속 확장하려는 이스라엘의 행동을 비난하였다. 최근 이스라엘당국이 푸드 스납부의 강제지역에 112동의 유대인살림집을 새로 건설할 계획을 발표함과 관련하여 성명은 이것을 국제적노력을 방해하는 그릇된 행위라고 비판하였다.

회장에서 유대인 《정착촌》을 계속 확장하려는 이스라엘의 행동을 비난하였다. 최근 이스라엘당국이 푸드 스납부의 강제지역에 112동의 유대인살림집을 새로 건설할 계획을 발표함과 관련하여 성명은 이것을 국제적노력을 방해하는 그릇된 행위라고 비판하였다.

회장에서 유대인 《정착촌》을 계속 확장하려는 이스라엘의 행동을 비난하였다. 최근 이스라엘당국이 푸드 스납부의 강제지역에 112동의 유대인살림집을 새로 건설할 계획을 발표함과 관련하여 성명은 이것을 국제적노력을 방해하는 그릇된 행위라고 비판하였다.

회장에서 유대인 《정착촌》을 계속 확장하려는 이스라엘의 행동을 비난하였다. 최근 이스라엘당국이 푸드 스납부의 강제지역에 112동의 유대인살림집을 새로 건설할 계획을 발표함과 관련하여 성명은 이것을 국제적노력을 방해하는 그릇된 행위라고 비판하였다.

본사기자

회장에서 유대인 《정착촌》을 계속 확장하려는 이스라엘의 행동을 비난하였다. 최근 이스라엘당국이 푸드 스납부의 강제지역에 112동의 유대인살림집을 새로 건설할 계획을 발표함과 관련하여 성명은 이것을 국제적노력을 방해하는 그릇된 행위라고 비판하였다.

회장에서 유대인 《정착촌》을 계속 확장하려는 이스라엘의 행동을 비난하였다. 최근 이스라엘당국이 푸드 스납부의 강제지역에 112동의 유대인살림집을 새로 건설할 계획을 발표함과 관련하여 성명은 이것을 국제적노력을 방해하는 그릇된 행위라고 비판하였다.

회장에서 유대인 《정착촌》을 계속 확장하려는 이스라엘의 행동을 비난하였다. 최근 이스라엘당국이 푸드 스납부의 강제지역에 112동의 유대인살림집을 새로 건설할 계획을 발표함과 관련하여 성명은 이것을 국제적노력을 방해하는 그릇된 행위라고 비판하였다.

회장에서 유대인 《정착촌》을 계속 확장하려는 이스라엘의 행동을 비난하였다. 최근 이스라엘당국이 푸드 스납부의 강제지역에 112동의 유대인살림집을 새로 건설할 계획을 발표함과 관련하여 성명은 이것을 국제적노력을 방해하는 그릇된 행위라고 비판하였다.

회장에서 유대인 《정착촌》을 계속 확장하려는 이스라엘의 행동을 비난하였다. 최근 이스라엘당국이 푸드 스납부의 강제지역에 112동의 유대인살림집을 새로 건설할 계획을 발표함과 관련하여 성명은 이것을 국제적노력을 방해하는 그릇된 행위라고 비판하였다.

회장에서 유대인 《정착촌》을 계속 확장하려는 이스라엘의 행동을 비난하였다. 최근 이스라엘당국이 푸드 스납부의 강제지역에 112동의 유대인살림집을 새로 건설할 계획을 발표함과 관련하여 성명은 이것을 국제적노력을 방해하는 그릇된 행위라고 비판하였다.

본사기자

회장에서 유대인 《정착촌》을 계속 확장하려는 이스라엘의 행동을 비난하였다. 최근 이스라엘당국이 푸드 스납부의 강제지역에 112동의 유대인살림집을 새로 건설할 계획을 발표함과 관련하여 성명은 이것을 국제적노력을 방해하는 그릇된 행위라고 비판하였다.

회장에서 유대인 《정착촌》을 계속 확장하려는 이스라엘의 행동을 비난하였다. 최근 이스라엘당국이 푸드 스납부의 강제지역에 112동의 유대인살림집을 새로 건설할 계획을 발표함과 관련하여 성명은 이것을 국제적노력을 방해하는 그릇된 행위라고 비판하였다.

회장에서 유대인 《정착촌》을 계속 확장하려는 이스라엘의 행동을 비난하였다. 최근 이스라엘당국이 푸드 스납부의 강제지역에 112동의 유대인살림집을 새로 건설할 계획을 발표함과 관련하여 성명은 이것을 국제적노력을 방해하는 그릇된 행위라고 비판하였다.

회장에서 유대인 《정착촌》을 계속 확장하려는 이스라엘의 행동을 비난하였다. 최근 이스라엘당국이 푸드 스납부의 강제지역에 112동의 유대인살림집을 새로 건설할 계획을 발표함과 관련하여 성명은 이것을 국제적노력을 방해하는 그릇된 행위라고 비판하였다.

회장에서 유대인 《정착촌》을 계속 확장하려는 이스라엘의 행동을 비난하였다. 최근 이스라엘당국이 푸드 스납부의 강제지역에 112동의 유대인살림집을 새로 건설할 계획을 발표함과 관련하여 성명은 이것을 국제적노력을 방해하는 그릇된 행위라고 비판하였다.

회장에서 유대인 《정착촌》을 계속 확장하려는 이스라엘의 행동을 비난하였다. 최근 이스라엘당국이 푸드 스납부의 강제지역에 112동의 유대인살림집을 새로 건설할 계획을 발표함과 관련하여 성명은 이것을 국제적노력을 방해하는 그릇된 행위라고 비판하였다.

본사기자

회장에서 유대인 《정착촌》을 계속 확장하려는 이스라엘의 행동을 비난하였다. 최근 이스라엘당국이 푸드 스납부의 강제지역에 112동의 유대인살림집을 새로 건설할 계획을 발표함과 관련하여 성명은 이것을 국제적노력을 방해하는 그릇된 행위라고 비판하였다.

회장에서 유대인 《정착촌》을 계속 확장하려는 이스라엘의 행동을 비난하였다. 최근 이스라엘당국이 푸드 스납부의 강제지역에 112동의 유대인살림집을 새로 건설할 계획을 발표함과 관련하여 성명은 이것을 국제적노력을 방해하는 그릇된 행위라고 비판하였다.

회장에서 유대인 《정착촌》을 계속 확장하려는 이스라엘의 행동을 비난하였다. 최근 이스라엘당국이 푸드 스납부의 강제지역에 112동의 유대인살림집을 새로 건설할 계획을 발표함과 관련하여 성명은 이것을 국제적노력을 방해하는 그릇된 행위라고 비판하였다.

회장에서 유대인 《정착촌》을 계속 확장하려는 이스라엘의 행동을 비난하였다. 최근 이스라엘당국이 푸드 스납부의 강제지역에 112동의 유대인살림집을 새로 건설할 계획을 발표함과 관련하여 성명은 이것을 국제적노력을 방해하는 그릇된 행위라고 비판하였다.

회장에서 유대인 《정착촌》을 계속 확장하려는 이스라엘의 행동을 비난하였다. 최근 이스라엘당국이 푸드 스납부의 강제지역에 112동의 유대인살림집을 새로 건설할 계획을 발표함과 관련하여 성명은 이것을 국제적노력을 방해하는 그릇된 행위라고 비판하였다.

회장에서 유대인 《정착촌》을 계속 확장하려는 이스라엘의 행동을 비난하였다. 최근 이스라엘당국이 푸드 스납부의 강제지역에 112동의 유대인살림집을 새로 건설할 계획을 발표함과 관련하여 성명은 이것을 국제적노력을 방해하는 그릇된 행위라고 비판하였다.

본사기자

회장에서 유대인 《정착촌》을 계속 확장하려는 이스라엘의 행동을 비난하였다. 최근 이스라엘당국이 푸드 스납부의 강제지역에 112동의 유대인살림집을 새로 건설할 계획을 발표함과 관련하여 성명은 이것을 국제적노력을 방해하는 그릇된 행위라고 비판하였다.

회장에서 유대인 《정착촌》을 계속 확장하려는 이스라엘의 행동을 비난하였다. 최근 이스라엘당국이 푸드 스납부의 강제지역에 112동의 유대인살림집을 새로 건설할 계획을 발표함과 관련하여 성명은 이것을 국제적노력을 방해하는 그릇된 행위라고 비판하였다.

회장에서 유대인 《정착촌》을 계속 확장하려는 이스라엘의 행동을 비난하였다. 최근 이스라엘당국이 푸드 스납부의 강제지역에 112동의 유대인살림집을 새로 건설할 계획을 발표함과 관련하여 성명은 이것을 국제적노력을 방해하는 그릇된 행위라고 비판하였다.

회장에서 유대인 《정착촌》을 계속 확장하려는 이스라엘의 행동을 비난하였다. 최근 이스라엘당국이 푸드 스납부의 강제지역에 112동의 유대인살림집을 새로 건설할 계획을 발표함과 관련하여 성명은 이것을 국제적노력을 방해하는 그릇된 행위라고 비판하였다.

회장에서 유대인 《정착촌》을 계속 확장하려는 이스라엘의 행동을 비난하였다. 최근 이스라엘당국이 푸드 스납부의 강제지역에 112동의 유대인살림집을 새로 건설할 계획을 발표함과 관련하여 성명은 이것을 국제적노력을 방해하는 그릇된 행위라고 비판하였다.

회장에서 유대인 《정착촌》을 계속 확장하려는 이스라엘의 행동을 비난하였다. 최근 이스라엘당국이 푸드 스납부의 강제지역에 112동의 유대인살림집을 새로 건설할 계획을 발표함과 관련하여 성명은 이것을 국제적노력을 방해하는 그릇된 행위라고 비판하였다.

본사기자